

#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 Vol.25

# 목 차

2017. 7. 24. 해외사업진흥팀

구 분	제 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잇단 슈퍼히어로 영화의 성공으로 만화책 판매 수익 증가</li> <li>-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입자 수 1억 400만 명 달해</li> <li>- 아마존, '아가사 크리스티' 드라마 미국 배급 계약</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금융당국, 완다그룹에 대출 금지 조치</li> <li>- CCTV, 미국 Hasbro와 애니메이션 합작 프로젝트 추진 중</li> <li>- 중국 모바일 게임, 해적왕 원피스 상표권 침해로 벌금 48억 원 外 단신 3</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K 엔터프라이즈 등, HMD 없는 &lt;8K : VRライド&gt; 일본 최초 공개</li> <li>- 애니메이션 &amp; 일식으로 미·일 교류 강화, 정부 태스크포스 계획 수립</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2020년까지 5G 통신 세계 규격 통일 합의</li> <li>- 프랑스에서 한산 모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TV, 인니-인도 합작 드라마 시청률 고공행진</li> <li>- 영국 런던 뮤지컬 팀, 유명 뮤지컬 OST 콘서트 인니 공연 초연</li> </ul>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방송 산업 발전 위한 위원회 설립</li> <li>- 카타르의 비인스포츠, UAE에서 방송 재개</li> <li>- 올해 상반기 UAE 스타트업 투자, 전년 대비 5배 증가</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ck in Rio 주최자, "성공확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li> <li>- 브라질 경제위기 속에서 부활하는 박물관</li> </ul>

# 미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 □ 잇단 슈퍼히어로 영화의 성공으로 만화책 판매 수익 증가

- 미국 만화 산업의 주요 판매 집계 사이트인 코믹론과 ICv2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만화 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11억 달러로 집계됨
- 2015년 미국 만화 판매 수익은 10억 달러였으며, 만화 산업이 가장 활발했다고 평가된 1993년도 판매 수익은 현재 물가로 환산했을 때 14억 달러 정도였음
- 2016년 5% 만화 판매 수익 증가로 미국 내 만화 산업이 드디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같은 수익 증가에는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 마블과 DC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 영화의 잇단 성공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원더우먼의 성공으로 코믹북을 찾는 여성 팬들이 증가하고, 그린 랜턴으로 무슬림 아메리칸 슈퍼히어로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도 수익 증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남
- 슈퍼히어로 만화는 영화의 탄탄한 캐릭터와 스토리 등의 기반을 제공해주고, 그 영화의 성공으로 만화의 판매량에도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이같이 입증되었음

## □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입자 수 1억 400만 명 달해

- 올해 2분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가 52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회사 및 월가의 예상치인 32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전체 가입자 수는 1년 전 8,300만 명에서 1억 400만 명으로 증가했음
- 국적별 신규 회원 수를 살펴보면, 미국 내 107만 명,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414만 명이 가입했음
-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확보한 회원 수(5,200만 명)가 처음으로 미국 내 회원 수(5,190만 명)를 뛰어넘었음
- 이 같은 넷플릭스의 열풍은 2분기에 선보인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5’, ‘오렌지’,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 등 대작 드라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전용 콘텐츠 ‘옥자’가 화제가 되는 등 독창적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 **아마존, ‘아가사 크리스티’ 드라마 미국 배급 계약**

- 아마존이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가사 크리스티’ 제작사의 향후 7개 드라마에 대한 미국 내 배급 계약을 체결함
- 처음으로 촬영하게 될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1958년 소설을 기초로 한 ‘누명(Ordeal By Innocence)’으로, BBC에서 3부작 미니시리즈로 방영될 예정
- 주요 출연진으로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출연한 ‘빌 나이’를 비롯해 ‘캐서린 키너’, ‘매튜 구드’ 등임
- ‘누명’ 제작에는 2015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And Then There Were None)’와 ‘검찰측 증인(The Witness For The Prosecution)’의 제작진인 아가사 크리스티 리미티드(Agatha Christie Ltd.)와 매모쓰 스크린(Mammoth Screen)의 사라 펠프스가 다시 한번 뭉칠 예정
- ‘누명’을 시작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총 7개 드라마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기업 동향

## 중국 금융당국, 완다그룹에 대출 금지 조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6월 20일 중국 국영은행 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완다그룹의 대출 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이는 최근 들어 외국 기업과 활발한 M&A를 진행했던 완다그룹의 해외 자본 유출을 우려한 중국 금융당국의 저지로 인한 것으로 알려짐. 완다그룹의 해외 M&A는 총 6건으로, 할리우드의 대표 영화사인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와 미국의 영화관 체인점 AMC과 카마이크, 유럽의 영화관 체인점 오데온과 노르딕 시네마, 영국의 요트 제작업체 선시커요트 등이 포함됨. 이 중 오데온과 노르딕 시네마는 아직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임. 반면 오늘 중국 매체는 완다의 러스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어 대해 러스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쑨홍빈(孙宏斌)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힘.

기업명	인수금액	기업명	인수금액
AMC	12억 달러	오데온 시네마	12억 달러
레전더리 ENT	35억 달러	노르딕 시네마	6억 5천만 달러
카마이크 시네마	12억 달러	선시커 요트	16억 달러

## CCTV, 미국 Hasbro와 애니메이션 합작 프로젝트 추진 중

최근 CCTV발 소식에 따르면, CCTV 애니메이션과 미국 Hasbro와 <나타와 트랜스포머(哪吒与变形金刚)>라는 애니메이션 합작 프로젝트 추진 중이라 밝힘. Hasbro는 미국 최대 완구 전문업체로, 현재 트랜스포머 IP를 보유 중임. 이번 합작과 관련하여 아직 제작 규모·방영 시기·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해 협상 중이나, 중국과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IP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발굴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짐.

## B.A.T, VR 콘텐츠 개발 동향

광저우 연구센터 iMedia에 따르면, 2016년 중국 VR 시장가치는 15억 위안(약, 2,499억 원)으로, 2020년까지 550억 위안(약 9조 1,63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시장 조사기관 Canalys에 따르면, 올해 출시 예정인 630만 개의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중 중국 소비자 예상 구매량은 40%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 속에 중국 3대 IT 기업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는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와 같은 하드웨어보다, VR을 위한 콘텐츠와 플랫폼 연구개발에 주력 중임.

VR

기업명	VR 사업 현황
바이두	바이두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아이치이(爱奇艺)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VR 중국어 서비스를 목표로 함. 아이치이는 이미 VR 관련 기업 300여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임. 최근 아이치이는 영화 및 게임 전용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 장비를 발표함. 또한 스트리밍 미디어를 통한 콘서트 생중계 및 VR 영화 촬영에도 투자할 예정.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산하 쇼핑 플랫폼 4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위해 VR 쇼핑 체험 환경을 구축 중임. 작년 VR 쇼핑 플랫폼 Buy+ 발표 당시, 한 시간 만에 3만여명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함. 이 밖에 VR Pay 서비스를 출시하여, VR 헤드셋으로 소비자의 음성 인식을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하게 함.
텐센트	텐센트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300 여개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여, 앞으로 스마트 모바일 게임 등을 개발할 예정. 또한 유명 VR 기기업체 오쿨러스 VR사에 VR영화 등 VR콘텐츠를 공급하는 오리지널 포스(Original Force)에 투자하여, 콘서트 홀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으로 VR 콘서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중국, 2016년 문화 관련 예산 결산 발표

최근, 중국 재정부는 2016년 중국 재정 결산을 발표함. 그 중 문화 체육과 매체의 최종 결산총액은 247억 9,500만 위안(약 4조 1,246억 원)으로 집계됨  
문화 체육과 매체 지출은 ①문화 ②문물 ③체육 ④신문·출판·라디오·TV·미디어 ⑤ 기타 문화 체육과 매체 지출 등 5개 분야를 포함함. 그 중 신문·출판·라디오·TV·미디어 결산총액은 134억 7,800만 위안(약 2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됨

### 2016년 중국 신문·출판·라디오·TV·미디어 분야 예산 결산 현황

정책

분야	세부 항목	결산
신문 출판 라디오 TV 미디어	행정 운영	1억 6,100만 위안 (약 267억 8,718만 원)
	일반 행정 관리 사무	4억 3,300만 위안 (약 720억 2,522만 원)
	기관 서비스	1억 4,000만 위안 (약 232억 9,740만 원)
	라디오	36억 5,700만 위안 (약 6,084억 8,823만 원)
	방송	11억 500만 위안 (약 1,838억 8,305만 원)
	영화	4억 4,800만 위안 (약 745억 4,272만 원)
	신문 통신	26억 900만 위안 (약 4,340억 715만원)
	출판 유통	34억 4,000만 위안 (약 5,722억 960만 원)
	판권 관리	4,400만 위안 (약 73억 1,896만 원)
	기타 신문출판방송영상	14억 4,100만 위안 (약 2,397억 5,358만 원)

## 중국 모바일 게임, 해적왕 원피스 상표권 침해로 벌금 48억 원

저작권

최근 중국 베이징시 공상국은 일부 상표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였음. 그 중 일본의 인기 만화 ‘해적왕 원피스’ 를 불법으로 도용한 모바일 게임 회사에 벌금 2,937만 위안(약 48억 8천만 원)이 부과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 상표권 침해 역사상 가장 높은 벌금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음  
이번에 ‘해적왕 원피스’ 를 불법 도용한 회사는 베이징 러후이텐샤 테크놀로지 유한공사(北京乐汇天下科技有限公司)로, 이들은 중국내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플랫폼인 360·바이두·완도우사(豌豆荚)를 통해서 자체 개발 게임인 ‘주머니 해적왕(口袋海贼王)’· ‘해적왕 아케이드(街机海贼王)’ 등에서 ‘해적왕 원피스’ 를 무단 도용하여 적발됨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22년에 개최될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2016년 초부터 북경시 해정구 공상국(海淀工商分局)과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협력 하에 상표권 침해 근절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6 동영상 사이트 자체제작 콘텐츠 투자규모 약 4조 원

뉴미디어

중국 영상산업 전문 리서치 기관인 CCSmart(新传智库)가 발표한 <2016 인터넷 자체 제작극 백서(2016网络自制剧行业白皮书)>에 따르면, 작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규모가 약 609억 위안(약 10조 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의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과 동시에 자체 제작에 대한 투자도 전년대비 125% 증가한 270억 위안(약 4조 원)으로, 작품수도 약 42% 증가하였다고 조사됨  
아이치이의 콘텐츠 수석관 왕샤오휘(王晓晖)는 ‘先인터넷·后방송국’ 형태의 방영 비율이 전년대비 230%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텐센트 산하의 펑귄영상(企鹅影视)의 CEO 쑤쑤화이(孙忠怀)는 2016년 텐센트TV의 자체제작 비율이 전년대비 300% 증가하였다고 밝힘

# 일본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

## □ NHK 엔터프라이즈 등, HMD 없는 <8K : VRライド> 일본 최초 공개

- NHK 엔터프라이즈(NHK Enterprises, Inc.), NHK 미디어테크놀로지(NHK Media Technology, Inc.), 레코초크(RecoChoku Co.,Ltd.), WONDER VISION TECHNO LABORATORY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장착하지 않고 8K VR을 체험할 수 있는ライド형 <8K VR Ride featuring “Tokyo Victory” >를 관계자 대상으로 공개
- 8K:VRライド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개최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전시회 「SXSW 2017」에서 선보인 콘텐츠로, 일본에서의 공개는 이번이 처음임
- 높이 3.4m × 폭 5.2m × 깊이 2.6m의 반구형 모양의 스크린과 8K 프로젝터, 모션ライド(Motion Ride)로 구성. 영상에 맞춰 의자가 상하좌우, 대각선 등으로 움직이며 영상 속으로 달려가고 나는 듯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음
- 8K 카메라 한 대로 촬영했으며, 촬영한 영상은 JVC 켄우드(JVC KENWOOD Corp.)의 8K 프로젝터 「DLA-VS4800」으로 재생. 재생 영상을 곡면 거울로 반사하여 돔형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곡면 투상을 실현함
- 일반공개는 「DIGITAL CONTENT EXPO 2017(2017.10.27~29)」에서 진행할 예정

## □ 애니메이션&일식으로 미·일 교류 강화, 정부 태스크포스 계획 수립

- 일본 정부는 미·일 간의 교류 강화를 검토하는 「그래스 루츠(Grass Roots)로부터의 미·일 관계 강화에 관한 정부 태스크포스」(의장·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의 최종 회의를 일본 수상관저에서 개최함(2017.7.13.). 애니메이션이나 일식 등 친숙한 콘텐츠로 일본 문화 이해 촉진에 주력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함
- 미국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지역인만큼, 각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상황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벤트의 정례화와 ◇일본어 교육의 거점 만들기, ◇일방 초청 강화 등을 꼽음
- 하기우다 부장관은 회의에서 「이러한 노력은 일본 전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일 관계의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유럽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센터

## □ 유럽, 2020년까지 5G 통신 세계 규격 통일 합의

- 5G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의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4G보다 10~100배 더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 차세대 초고속무선통신 ‘제5세대(5G)’ 개막을 위해 세계 규격을 통일할 전망
- 통일 규격의 핵심은 주파수대, 다른 서비스와의 간섭 현상을 막는 방법 등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참가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공통 기술을 활용 하게 됨으로서 휴대용 기기나 기지국의 경우 각자의 지역에 맞춰 부품을 바꿀 필요가 없어져 제조원가가 절감되며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해당 국가들의 민간기업 모임은 2019년까지 기술적인 국제표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UN의 전문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프랑스에서 한산 모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 프랑스 최대의 민영방송 TF1에서 제작 한산 모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할 예정
- 프랑스의 유명 스타일리스트 마리 라벨이 2년 전 알게 된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기억하고 의상 제작을 계획하던 중 TF1과 다큐멘터리를 기획
- TF1 제작진은 한국을 방문하여 모시풀 수확과 모시짜기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옷감으로의 모시뿐만 아니라 먹는 모시의 활용까지 집중 조명할 예정
- 한산 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며 천연 섬유로 상품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난 6월 미국 방문 시 영부인이 한산모시 한복을 입어 관심을 모은 바 있음
- 해당 다큐멘터리는 TF1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방영되는 그랑 레포타지(Grand reportage) 프로그램에서 선보여질 예정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 ANTV, 인니-인도 합작 드라마 시청률 고공행진

-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사인 ANTV는 <타지마할 하늘의 사랑 1(Cinta di Langit Taj Mahal 1)>, <타지마할 하늘의 사랑 2(Cinta di Langit Taj Mahal2)>, <히말라야 중턱의 사랑(Cinta di Pangkuan Himalaya)>, <빛나는 사랑(Cahaya Cinta)>, <나딘(Nadin)> 등 인도 배우와 인도네시아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 총 5편을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음. 특히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Nielsen)의 최근 5~7월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 <나딘>은 평점 3.2, 드라마 <히말라야 중턱의 사랑>은 평점 2.2를 기록하며 현재 ANTV의 인기 드라마임을 입증하였음
- 오티스 하히자리 ANTV 부사장은 “인도네시아 배우와 인도 배우의 합작 드라마 제작은 ANTV가 시청률이 높은 인기 방송사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라고 밝힘. 2013년 말부터 ANTV는 <마하바라타>, <조하 악바르>, <우타란> 등 외국 프로그램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며 큰 인기를 받은 바가 있음
- 이 외에도, ANTV는 인도 배우들과 인도네시아 현지팬들의 팬미팅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시청자들의 ANTV 프로그램 호감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음
- ANTV 예능 프로그램 <빠스부커스(Pesbukers)>를 통해 인도네시아 배우들과 인도 배우들이 서로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며 특히, 인도 배우들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청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인기를 얻고 있음
- 2013년 ANTV의 시장점유율은 6.7%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15.1%로 시장점유율이 대폭 상승하여 1위 방송사인 RCTI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0.8%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ANTV는 인니-인도 합작 프로그램 방영이 총 방영 프로그램 중 22.6%에 달하며, 이 외에 인도 제작 프로그램 38.3%, 인도네시아 현지 제작 프로그램 34.3%, 기타 4.8% 순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 이미지 출처 : ANTV 공식 홈페이지

## □ 영국 런던 뮤지컬 팀, 유명 뮤지컬 OST 콘서트 인니 공연 초연

- 201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자카르타 찌푸트라 아트프레너 씨어터 (Ciputra Artpreneur Theater)에서 <스타즈 오브 더 웨스트 엔드(Stars of The West End)> 공연이 약 2시간동안 펼쳐짐
- 이 공연은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씨어터(West End Theatre)의 뮤지컬 인기 배우들(마이크 스틸링, 쇼냐 린제이, 톰 솔로몬, 마야 바레도 더피)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10대 뮤지컬 속에 등장하는 삽입곡을 한 편의 콘서트로 제작한 것임
- 이 공연의 월드투어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영국 등 유럽 등지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연은 이번이 초연임
- 이번 인도네시아 공연에서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갯츠>, <미스 사이공>, <시카고>, <맘마미아> 등 유명 뮤지컬 OST 총 30곡을 선보임
- 이번 뮤지컬 콘서트 가격은 600,000루피아(약 54,000원) ~ 1,500,000루피아(약 135,000원) 사이로, 약 1,200여명의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중동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UAE 마케터

## □ 사우디, 방송 산업 발전 위한 위원회 설립

- 사우디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가 국영 방송 기업인 SBC(Saudi Broadcasting Corporation) 산하 TV 채널 및 라디오 방송의 발전을 위한 고위 위원회를 설립
- 문화정보부 장관, 아와드 빈 살레 알 아와드 박사(Dr. Awwad bin Saleh Al-Awwad,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의 모든 방송제작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이번 위원회 설립을 추진
-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 국영 언론사)는 “이번 설립된 ‘최고 위원회(Supreme Committee)’는 미디어 및 방송 분야의 국내외 기업 간의 협력을 기초로, 통합 발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및 미디어 시설 개발은 물론, 미디어 분야를 위한 재능 있는 인재와 고위 인사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힘
- TV 앵커, 칼리드 알로라이위(Khaled Alolaiwi)는 위원회 설립발표를 반기며, “세계시장으로 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 사우디 미디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며, “우리는 이슬람의 요람, 아랍주의(Arabism)의 시초, 또한 G20의 멤버이기도 한 사우디를 최선을 다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우디 미디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 밝힘
- 사우디 방송 관계자 및 시청자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이 시청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며, 또한 SBC의 급여 조건도 좋지 않아 재능 있는 인재 영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조차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카타르의 비인스포츠, UAE에서 방송 재개

- 아랍 4개국(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과 카타르의 외교마찰 이후 방송이 중단되었던, 비인스포츠(BeIN Sports, 카타르 알자지라 네트워크 계열사) 방송이 UAE에서 재개됨
- UAE 대표 통신기업인 에티살라트(Etisalat)는 대고객 메일을 통해, 7월 22일 부터 비인스포츠 채널 패키지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 하지만, 비인스포츠 방송 재개 이면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 올해 상반기 UAE 스타트업 투자, 전년 대비 5배 증가

- 아마존의 아랍지역 최대 온라인 마켓인 ‘수크닷컴(Souq.com)’ 인수 (6억 5천만 달러) 및 아랍의 ‘우버(Uber)’로 불리는 자동차 공유 네트워크 ‘카림(Careem)’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1억 5천만 달러) 외에도, 2017년 상반기 UAE 스타트업에 87회에 걸쳐 약 1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됨
- 작년 같은 기간, 75번의 투자 유치를 통해 약 1억 9천 3백만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하여 약 5배가 증가한 규모
- 현재까지 아랍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규모였던 아마존의 ‘수크닷컴’ 인수로 아랍 스타트업 대한 세계시장의 관심이 증가하며, 향후 중동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디지털에 익숙하고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층을 보유한 UAE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야로, ‘수크닷컴’ 외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눈닷컴(Noon.com)’의 경우 UAE 부동산 개발 회사, 이마르 프로퍼티즈(Emaar Properties)의 대표 모하메드 알라바르(Mohamed Alabbar)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와 공동 출자로 설립한 벤처 기업임
- 올해 스타트업 투자규모 면에서도, 전자상거래 기업은 16%의 투자를 유치하며 1위에 올랐고, 뒤이어 테크놀로지와 핀테크 기업이 각각 13%, 10%의 투자 유치에 성공
- UAE는 정부차원에서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

# 브라질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7. 24(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라질 마케터

## □ Rock in Rio 주관사 “성공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

-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되는 ‘Rock in Rio’는 올해 8회를 맞이해 작년 대비 행사 규모를 두 배 증가
- 올해 Rock in Rio에서는 그 전과는 달리 리셉션 광장에 게임 관련 부스들과 부대행사로 “digital stage”라는 무대와 관련된 유명 유튜버(Whinderson Nunes와 Christion Figueiredo)들이 초대될 예정
- Rio de Janeiro주 외에 가장 관람객이 많은 주는 Sao Paulo와 Minas Gerais로, 초창기에는 RJ주가 100%였고, 차후 RJ주가 70%로 줄어들며, 작년 페스티벌에는 Rio de Janeiro에서 55%, 올해 티켓 판매율은 Rio에서 39%이고 나머지는 Sao Paulo주와 Minas Gerais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
- 총 8회 중 2회는 브라질 정부의 문화프로젝트 ‘Lei Rouanet’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주최자 Roberto Medina는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딱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현재는 지원 사업에 프로젝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 제출자의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따져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행사비 : 총 R\$ 2억 (약 710억 6,800만 원), 후원 : R\$ 1.06억 (약 376억 6,604만 원), 관람객 : 1일/10만 명, 총 70만 명 (티켓 매진)

## □ 브라질 경제위기 속에서 부활하는 박물관

- 보통 경제위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문화로 꼽히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거스르고 앞으로 5년 내에 5개의 주에서 약 12개의 문화예술 관련 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할 예정임
- 새로운 박물관들의 특징은, 기존에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전시하는 방식이 아닌, 3D나 AR/VR 같은 과학기술을 동반하여 만들어 질 것임

---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5001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기현 센터장 : +86-10-6501-9971 / gihun@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이경은 센터장 : +81-3-5363-4511 / lke0801@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마케터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남미마케터(브라질 상파울루) 박희란 마케터 : +5511-99906-1577 / brazil@kocca.kr
-